# 부시 합류 중동평화회의 순항할까

## 아랍 15개국 동참…이-팔 국경선 이견 여전, 난제 첩첩산중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1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뒤늦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섰지만 이번 중동평화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다.

무려 60년간 이어져온 유혈의 질곡에서 한순간에 벗어나기에는 양측간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첨예하게 얽혀있는 탓이다.

미국 정부가 27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중동평화회의에 앞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막후 접촉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을 벌이고 있으나 의제 선정 문제조차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AP통신이 26일 전했다.

◇'산 넘어 산'…의제 선정도 쉽지 않아=이번 중동평화회의에서 다뤄져야할 핵심 사안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국경 획정, 동예루살렘의 지위,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다.

팔레스타인측은 이들 사안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스라엘은 좀 더 모호한 표현으로 본협상 과정에서 '퇴로'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어 내실있는 협상이 진행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방 당국자들에 따르면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국경 문제와 관련해 사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가자지구 100%와 요르단강 서안의 '구십 몇 퍼센트'를 팔레스타인에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올메르트 총리가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받는 대신 요르단강 서안의 92% 이상을 반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요르단강 서안 땅의 4~6%에 대해서는 동일한 면적의 이스라엘 영토를 제공할 의사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기본적으로 총 6천205㎢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100% 팔레스타인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체 면적의 1.5~2%에 대해서는 영토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압바스 수반의 의중이라고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전했다.

압바스 수반이 향후 건국될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동예루살렘을 지목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를 수도로 간주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아랍 15개국 참석…'외화내빈'=이번 중동평화회의에는 아랍 15개국도 동참, 명실공히 중동평화회의에 걸맞는 '외연'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이란의 동맹국인 시리아가 이번 회의에 참석키로 한 점도 미국 당국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는 외무장관이 아닌 외무차관을 중동평화회의에 파견키로 결정하는 한편 1967년 이스라엘에 빼앗긴 골란고원의 반환을 의제로 다룰 것은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시리아의 관심은 미국의 의도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는 이번 중동평화회의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미디어 쇼'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은 '현재진행형'=세계의 이목이 중동평화회의로 쏠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유혈사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5일 요르단강 서안 도시 툴카렘에서 지명수배자 명단에 포함된 팔레스타인 민병대원 1명을 사살하고 다른 1명을 체포했다.

또 가자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민병대 2명이 탱크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다. /연합뉴스

중국을 방문중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 중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300억달러 상당의 계약 수주에 성공하는 등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를 벌였다. /로이터=연합뉴스

## 중국 간 사르코지, 300억달러 수주

# 中 상하이서 한국인 임직원 감금당해

## 방적공장 직원들 "공장 처분 도주"…5일째 억류

중국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방적공장 임직원 7명이 중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공장에 감금됐다.

중국 상하이 충밍(崇明)현 신허(新河)진 소재 한국회사인 화인방적(대표이사 우영관) 공장에서 우사장을 비롯, 한국인 직원 7명이 지난 23일부터 중국인 근로자 1천여명에 의해 공장에 감금됐다.

중국인 근로자들은 회사측이 지난 20일 공장의 생산설비를 일부 처분하자 우 사장 등이 야반도주하려는 것으로 간주, 11월 임금과 경제보상금, 밀린 잔업수당 등을 요구하며 한국인 직원들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 직원들이 중국인 근로자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임직원들은 26일 현재까지 여전히 공장 내부로 활동반경을 제한받고 있으며 공장출입시 중국인 근로자들이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인방적은 중국인 근로자 1천800여명을 두고 10년 전부터 충밍현에서 방적공장을 운영해왔으며 2년 전에는 제2공장을 설립하는 등 성세를 구가했으나 최근 근로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내년부터 신노동계약법이 발효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왔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23일 사건발생 이후 담당 영사관을 충밍현 현지 공장으로 파견해 현지 공안에 한국인 직원들의 신변안전을 요청하고 협의에 의한 원만한 사태해결을 지방정부와 회사측에 요청했다.

신허진 정부와 근로자들은 토지이용 당시 지급하지 않는 돈과 금융기관 대출금,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와 잔업수당 등으로 회사측에 120억원 가량을 요구해놓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 역사를 바꾼 세계적인 거짓말

### 카터 "이란 미대사관 인질…군사행동 없다"
### 히틀러 "전쟁 않겠다"…2차 세계대전 도발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WP)가 25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세계적인 거짓말을 소개했다.

포스트는 이날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라는 기사에서 "우리의 인생은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서로 잘 아는 두 사람이 10분간 대화를 하면서 보통 2~3개의 거짓말을 한다"고 밝혔다.

포스트는 정당화된 거짓말의 사례로 지난 1980년 1월 '이란 미대사관 인질 억류사건' 때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의 말을 예로 들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은 테헤란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군사행동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 순간 미군은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임무수행을 위해 '속임수'가 필요했다는 것.

2차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전시에 진실이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가끔 '거짓'이라는 경호원을 대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그러나 '큰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거나 자신을 보호를 위해서 사용된다며 포스트는 인류역사를 바꾼 최고의 거짓말로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리가 지난 1938년 당시 영국의 네빌 챔버레인 총리에게 했던 말을 꼽았다.

당시 챔버레인 총리는 임박해오는 전쟁을 피하려는 마지막 노력으로 히틀러를 만났고,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국경을 새로 정하는 것에 대해 협상한다면 전쟁은 피할 수 있다고 챔버레인에게 확신시켰다. 챔버레인은 이에 만족해서 히틀러가 말한 것을 영국 의회에 보고했지만 히틀러는 결국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워싱턴=연합뉴스

## 中-달라이 라마, 후계자 문제 놓고 설전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72·사진)와 후계자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21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 생전에 차기 달라이 라마를 선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베트 불교는 생사 윤회사상에 근거해 달라이 라마가 입적한 뒤 다시 세속에 환생한 어린이 육체로 영혼이 들어간 화신을 차기 달라이 라마로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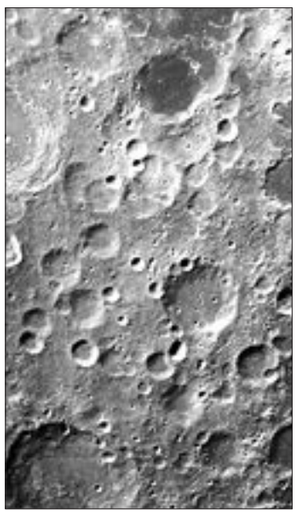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가 이 같은 전통을 깨고 자신의 생전에 후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중국이 티베트 통제를 위해 활불(活佛·환생한 부처)에 대한 인준 규정까지 바꾼 것과 관련이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 대만 '로봇 병사' 개발 성공

대만이 로봇병사 개발에 성공, 실전시 장병들의 사망률을 줄이고 육군의 작전반경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베이징 주간지 세계신문보가 최신호(27일자)에서 보도했다.

주간지는 대만 언론매체들을 인용, 대만군관학교 연구팀이 2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10월 로봇병사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하고 이로써 대만 육군은 앞으로 로봇부대를 만들어 군 작전시 정찰과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군관학교 전기과 조교수인 루자훙 상교(上校·중령급), 장파셴 상교, 쑹치궤이 중교 등 5명을 핵심으로 모두 37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 2005년 '선도형 다기능 작전 플랫폼'이라는 암호명아래 2년만에 로봇병사 개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 中 '창어 1호' 달 사진 첫 공개

## 원자바오 총리 "1천년의 꿈 실현 쾌거" 성공 자축

중국은 자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인 '창어(嫦娥) 1호'가 처음으로 보내온 달 탐사 사진〈사진〉을 26일 공개하며 성공을 자축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국가과학공업위원회가 마련한 발표회에 참석, "달 탐사 프로젝트의 성공은 중국의 우주 탐사능력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섰음을 확인하는 쾌거"라며 "달 탐사에 대한 중화민족 1천년의 꿈을 실현시켜 준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축하했다.

원 총리는 또 "후진타오 주석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줬다"며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의 정신을 계승해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베이징=연합뉴스